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차형철·이영진 대표

중소벤처부·중기중앙회 선정



차형철 대표

이영진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1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이사와 이영진 제너시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 대표는 미국·유럽 수입에 의존했던 바이오 산업 필수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물론 국내 최초로 미국의 엄격한 국가 규격인 NSF49(미국 국립과학재단) 인증을 획득해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으며 미국 유럽 중동지역 수출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2016년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 회원이 됐으며 매년 직원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아동양육 시설을 방문해 직접 환경정비활동·청소봉사를 진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힘쓰고 있다.

제너시스는 1997년 창업해 시스템 통합(SI) 시스템운영(SM)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6건의 특허와 저작권을 바탕으로 다수의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 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용 정보보호 제품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망 연계 시스템 IEUM(이음) V1.0을 개발해 망 분리 이전과 동일한 실시간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성능과 편리한 연계 기능을 제공해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안병준 기자

The JoongAng

2021/09/09 목요일
016면 종합

차형철·이영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사진 왼쪽) 씨에이치씨랩 대표와 이영진(오른쪽) 제너시스 대표를 8일 선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사진 왼쪽) 씨에이치씨랩 대표와 이영진(오른쪽) 제너시스 대표를 8일 선정했다.

한국경제

2021년 09월 09일 목요일 A36면 people

차형철·이영진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바이오산업의 필수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왼쪽)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필수인 망연계시스템을 개발한 이영진 제너시스 대표(오른쪽)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부는 올해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 대표와 이영진 대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 합리화, 수출 증대, 기술 개발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1996년 설립된 씨에이치씨랩은 바이오 의약품 실험의 필수 장비인 생물학



적 유해물질 차단장비(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또 국내 최초로 미국의 엄격한 국가 규격인 미국 국립과학재단 인증(NSF49)도 획득해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다. 미국 유럽 및 중동지역으로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37종의 특허 및 인증을 바탕으로 실험대, 흡후드(유해물질 노출방

지장비) 등 국내 실험실 기초장비·설비 분야에서 선두권에 올랐다.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

1997년 설립된 제너시스는 시스템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최신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는 망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망분리 이전과 같은 실시간 서비스 유지 및 업계 최고의 성능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정보기술(IT) 교육을 비롯해 장학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실천에도 노력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자랑스러운 중기인' 차형철·이영진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사진 왼쪽) 씨에이치씨랩 대표와 이영진(오른쪽) 제너시스시스템 대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 대표는 미국과 유럽 수입에 의존하던 바이오 산업 필수 장비인 생물 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이 대표는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하고 청년·청소년을 위한 정보기술(IT)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에 인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세계일보

'자랑스러운 중기인' 차형철·이영진

차, 생물안전작업대 첫 국산화 이, 망연계시스템 '이음' 개발

김용연 기자 Dragonspeech@segye.com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이사와 이영진 제너시스시스템 대표이사를 2021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형철 대표는 미국과 유럽 수입에 의존했던 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영진 대표는 국가용 정보보호 제



차형철

이영진

품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망연계시스템 IEUM(이음) V1.0을 개발해 망분리 이전과 같은 실시간 서비스를 유지하고, 편리한 연계 기능도 선보였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경영 합리화, 수출 증대, 기술 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이투데이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차형철·이영진 대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왼쪽 사진>(주씨에이치씨랩 대표)와 이영진<오른쪽>(주제너시스시스템 대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 대표는 미국과 유럽 수입에 의존하던 바이오산업 필수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으며 2016년에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이 대표는 다



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하고 청년·청소년을 위한 정보기술(IT) 교육 및 강연프로그램에 인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형철·이영진 대표, 자랑스러운 중기인에

씨에이치씨랩

제너시스템

중기부·중기중앙회, 올 3분기 인물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이사)와 이영진 (제너시스템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차형철 대표가 운영하는 (주)씨에이치씨랩은 1996년 창립 이후 37종의 특허 및 인증을 바탕으로 실험대, 흡후드(Fume hood),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의 개발·제조와 컨설팅을 통한 실험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실험실 기초장비 및 설비 분야에서 리더기업으로 성장했다.

씨에이치씨랩
생물안전작업대
국내 최초 개발
실험실 토탈 솔루션

제너시스템
특허 6건 바탕
공공·금융기관
시스템 구축·운영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왼쪽), 이영진 제너시스템 대표, 중기중앙회 제공

차 대표는 미국 및 유럽 수입에 의존했던 바이오 산업 필수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함은 물론, 국내 최초로 미국의 엄격한 국가 규격인 NSF49(미국 국립과학 재단) 인증을 획득해 수입 대체 효과와 미국, 유럽 및 중동지

역으로의 수출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차 대표는 2016년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 회원이 됐으며, 매년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사회복지법인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직접 환경정비활동·청소봉사 등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힘쓰고 있다.

이영진 대표가 운영하는 제너시스템은 1997년 창업해 시스템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6건의 특허와 저작권을 바탕으로 다수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용 정보보호 제품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망연계시스템 IEUM(이음) V1.0을 개발해 망분리 이전과 동일한 실시간 서비스 유지 및 업계 최고의 성능과 편리한 연계 기능을 제공해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2020년 5월 서울유스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IT교육 및 강연프로그램에 인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장학회 홈페이지 구축 재능 기부 등 사회공헌 실천에도 노력하고 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경향신문

2021년 09월 09일 목요일 019면 사람

차형철·이영진씨,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사진 왼쪽)와 이영진 제너시스템 대표(오른쪽)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 대표는 미국·유럽 수입에 의존했던 바이오 산업 필수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안전 인증(NSF49)을 획득해 미국과 유럽, 중동지역 수출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씨에이치씨랩은 37종의 특허와 인증을 바탕으로 생물안전작업대의 개발·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국내 실험실 기초장비·설비 분야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제너시스템은 시스템통합(SI)과 시스템운영(SM)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6건의 특허와 저작권을 바탕으로 여러 공공·금융기관에서 시스



템 구축·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용 정보보호 제품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망연계시스템 이음(IEUM) V1.0을 개발해 망분리 이전과 동일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기능을 선보였고, 청년·청소년을 위한 정보기술(IT)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모범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수출 증대, 기술 개발 등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공개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이영진 제너시스템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이사과 이영진 제너시스템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모범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우선 씨에이치씨랩은 1996년 창립 이후 37종의 특허 및 인증을 바탕으로 실험대, 흡후드, 생물안전작업대의 개발·제조와 컨설팅을 통한 실험실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실험실 기초장비 및 설비 분야에서 리더기업으로 성장했다.

차형철 대표는 미국 및 유럽 수입에 의존했던 바이오 산업 필수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함은 물론, 국내 최초로 미국의 엄격한 국가 규격인 NSF49(미국 국립과학 재단) 인증을 획득해 수입대체 효과와 미국, 유럽 및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2016년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 회원이 됐으며, 매년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사회복지법인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직접 환경정비활동·청소봉사 등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사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



이영진
제너시스템 대표

회적 책임에도 힘쓰고 있다.

제너시스템은 1997년 창업해 시스템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6건의 특허와 저작권을 바탕으로 다수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영진 대표는 '국가용 정보보호 제품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망연계 시스템 IEUM(이음) V1.0을 개발해 망분리 이전과 동일한 실시간 서비스 유지 및 업계 최고의 성능과 편리한 연계기능을 제공해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5월 서울유스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IT교육 및 강연프로그램에 인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장학회 홈페이지 구축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실천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동명 기자 simal0422@

전자신문 2021년 09월 09일 목요일 025면 인물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차형철·이영진 대표

〈씨에이치씨랩〉〈제너시스템〉



차형철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 씨에이치씨랩 대표와 이영진 제너시스템 대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씨에이치씨랩은 실험대, 흡후드, 생물안전작업대를 비롯해 실험실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실험실 기초장비 및 설비 분야 선두기업으로 성장했다. 차형철 대표는 수입에 의존했던 바이오 산업 필수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미국 국립과학 재단(NSF49) 인증을 획득했고, 유럽 및



이영진 대표

중동지역으로도 수출을 확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997년 설립된 제너시스템은 시스템통합(SI)·시스템운영(SM)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6건의 특허와 저작권을 바탕으로 다수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영진 대표는 '국가용 정보보호 제품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망연계 시스템 'IEUM(이음) V1.0'을 개발해 망분리 이전과 동일한 실시간 서비스 유지 및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해 성장을 이끌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